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연계 유망기업 공모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참여 벤처·스타트업 20일까지 모집… 창업·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위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컨소시엄 소속 25개 투자사와 함께,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행사는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과 유관기관 간 IR, 네트워킹 등의 협업으로 도내의 유망벤처기업을 발굴, 투자유치 기회 제공으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성공적 운영과 도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민선 8기 들어 공격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도내 창업·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누적 8,183억원이 결성되어 결성목표인 1조 펀드 조성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도내 기업 밸류업 △초기 창업 생태계 구축 △도의 유망기업 유치 등 개별 컨소시엄 3개 라운드에 참여할 30여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 이를 벤처투자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며, 하반기에 2라운드 3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게는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소속 25개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IR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투자연계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입주·보육 공간, 전문가 클리닉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유형은 일반(공동) 및 추천 방식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은 분야별 모집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되 추천의 경우 공고문에 안내된 전북 벤처펀드 25개 운영사 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35개 기관의 추천서를 추가

로 받아 신청하면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투자자 자체 IR로 발굴되는 유망기업을 도 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에 공유하여 적기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이 전북만의 우수IR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사업신청 플랫폼(<https://event.job.or.kr>)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ITRC 인재양성대전'에 참여해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홍보했다.

지역기업 공동 추진 연구성과 홍보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 'ITRC 인재양성대전'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ITRC 인재양성대전'에 참여해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ITRC 인재양성대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과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회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박람회다.

올해는 ‘변화를 기회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인재!’를 주제로, 전국 38개 대학 소속 81개 연구센터에서 약 4,500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센터의 핵심 기술성과는 물론 산학공동연구 사례, 인력양성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전북 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기업과 공동 연구한 주요 성과를 전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 △Edge AI 기반의 골프카트 주행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참

여기업: 디와이이노베이트(주), 전북대학교) △딥러닝 기반의 두피·모발 질환 자동 진단 소프트웨어 (참여기업: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전북대학교) △EIS 자동 측정 장비 설계 및 구현 (참여기업: (주)모나, 원광대학교) △에너지 분포에 따른 결함 분석을 통한 고성능 P-type 산화물 반도체 개발 (참여기업: (주)오디텍, 전북대학교) 등을 전시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향후 기술 상용화와 지역기업 협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천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관람객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도는 앞으로도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유전체 해독으로 감초 품종 진화 실체 밝혀

농촌진흥청, 유전체 정보 비교·분석… 자연 교잡 통해 유전적 다양성 확장

농촌진흥청은 계승연구재단, 서울대·세명대 등 민·관·학 협업을 통해 감초 유전체를 해독하고 품종 진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대표 약용작물인 감초는 한약재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인다.

농촌진흥청은 감초 품종 개발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만주감초’ 야생종을 수집해 약 415Mbp(메가베이스페어)의 유전체 정보를 조립했다.

‘만주감초’는 세계적으로 중국, 몽골 등 중앙아시아 사막 지역에 제한



신품종 감초

적으로 분포하며, 감초 중 가장 선호도 높아 고품질 한약재 등에 이용된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7개 나라에서 수집한 ‘유럽감초’ 등 감초 자원 4종 29개체와 유전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감초 주요 생산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만주감초’와 ‘유럽감초’ 종 사이의 자연 교잡을 통해 감초의 유전적 다양성이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교잡으로 생겨난 감초 품종 안에는 ‘만주감초’ 60%, ‘유럽감초’ 40% 정도의 유전자 비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3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 (IF 4.3))’에 실려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감초 관련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왔지만,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감초의 진화적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마경호 과장은 “감초 유전체 해독은 품종 판별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추출물 수율이 높은 감초 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감초 수출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교배해 만든 감초 신품종 ‘원감’, ‘다감’을 2023년 대한민국약전에 등재한 바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소방, 부처님 오신 날 맞아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6일까지 화재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주요 사찰 등에서 열리는 불축행사(연등회 등)를 위한 화기 사용과 많은 인파가 예상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2,545명과 의용소방대원 2,146명을 동원해

산립 인접 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불축행사가 예정된 사찰 42개소와 사찰 외 행사장 18개소에 소방인력 490명과 차량 60대를 사전 배치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불축행사에 앞서 도내 전통사찰 144개소를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중소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전북지방환경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전북 지역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신청한 사업장과 최근 2년 내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등 환경관리가 취약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술지원원은 공공기관, 환경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배출·방지사설 진단 및

관리방법 △노후시설 교체·개선방안 △환경 규제정보 제공 등 맞춤형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과정에서 사업장별 애로사항 등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적극 발굴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허재희 전북지방환경청장 환경감시팀장은 “기술지원 등을 통해 환경기술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토지의 74%(인 287만3,571필지)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20년 11월) 이전인 2020년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 적용되어 가격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우리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93%(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도내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1.42%로 가장 높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였고, 임실군의 변동률이 0.44%로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처 결정됐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사업 취소 공고

「임실 관촌초 통학로 지중화공사」 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문서번호 임실군 건설과-11516(“25. 4. 16.)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임실 관촌초 통학로 지중화공사
2. 지중화사업 취소 위치 : 임실군 관촌면 관촌삼거리(시점) ~ 관촌리 206-11(종점)
3. 공고내용 : 지중화 사업 취소
4. 지중화사업 취소지역 약도



5. 고객 안내사항

지중화사업 취소지역의 신·중설 고객은 전기공급약관 및 영업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공중지역에서의 신·중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